

다시 일으키는 교회

이사야61:1-11, 디모데후서14:1-5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자녀. 모든 문제 끝.” 오늘은 교회 창립 51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 우리 참사랑교회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봉사, 믿음으로 세워진 줄을 믿는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봉사와 믿음이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줄을 믿는다. 지난 50년을 뒤로 하고, 이제 100년의 응답을 향하여 50년을 시작하는 일년이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자. 2018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면서 헌신했다.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내외에서 전도캠프를 인도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는다. 제1,2,3 RUTC 시대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치유전문집중학교, 서밋전문집중학교라는 슬로건이 나와서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썼다. 우리 주위에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더욱 크게 떠서 그런 분들을 치유하고 돕기 위해서, 치유하는 복지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공동육아를 통해서, 영태아부 전도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실행해가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더욱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제자로 자라날 줄을 믿는다. 이를 두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더욱 크게 받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모든 일들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새로운 50년을 맞이해서 다시 일으키는 교회라는 말은, 넘어지고 무너졌고 쓰러진 것을 다시 일으키자는 것이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1. 왜 무너진 것을 일으켜야 하는가?

(1)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다. 살펴야 할 교회 현상, 우리의 현상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를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비등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타락했다고 지탄하기도 한다.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개종에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법정עד다가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맞았다. 틀렸다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육신적으로 타락한 것도 문제이다. 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이고 훨씬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타락이다. 복음의 유일성을 상실하고 교회가 종교화되어가고 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인간에게 온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문제,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육신 문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성공중심의 문제이다. 그 결과,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버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6가지 재앙에 빠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로 인한 저주문제와 사탄의 문제, 지옥배경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이 저주를 해결할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 바란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석가,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 되어주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고전15:3-4에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오늘 자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행4:12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런데 사탄은 시대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다. 중세 천주교가 이것을 놓치고 행위중심이 되어서 완전 흑암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중세를 ‘dark age’, 어둠의 시대라고 한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조각, 그림, 훌륭한 건물들을 짓고 굉장한 음악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 당시 교회가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원수, 악령, 사탄이 배후에서 계속 그렇게 한 것이다. 사탄은 교회가 혼합주의로 빠지도록, 종교다원주의로 빠지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사람들은 육신적인 정의를 외치는 동안에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오직 예수만 이야기 하느냐. 신학자들까지도 말한다. 어떤 신학교수는 오직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예수천당 불신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라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교회가 완전히 본질을 놓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습이 어떻다느니, 돈, 권력이 어떻다느니 교회를 계속 비판한다.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마치 선악과가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 나님의 의견은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한 결과, 바리새인들처럼 미혹되고 더 큰 영적인 죄악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이런 세상, 교회를 ‘너희가 다시 일으켜라. 복음 가진 너희가 다시 일으켜야 한다. 다시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2) 복음을 놓치고 영적으로 실패되거나 무엇이 안 되는가. 전도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현장과 후대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전도자가 없는 시대, 이단들이 활개 치는 시대. ‘교회에 나와 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다.’ 하는 전도밖에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후대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래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는 말이다. 도(道)는 길도, 사십은 진리 도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면 좋다고, 피아노 연주를 잘 한다고, 오케스트라

가 너무 좋으니까 오라는 식으로 한다.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도의 원래 의미와는 다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된 결과, 교회는 무능과 미자립에 빠져버렸다. 신자 개개인이 불신자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상이다. 당당하지 못하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지 못한다. 세상의 사람들과 맞추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얼버무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어느 신학교는 동료 나눠져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정부, 불신자 팀이 이사를 파송하고 학장을 임명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감히 교회를 보고 조롱하고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비정상인 된 것이 오늘 교회의 현상이다.

(3) 이럴 때, 참사랑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로 다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 본문의 말씀대로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교회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남은 반세기에는 거기에 온 힘을 몰두할 때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는다. 사42:8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자들이 조롱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분이 관여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아무도 조롱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재앙이 오기 시작한다. 때를 때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이 없어질 때마다 시대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 세계의 역사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크게 만들었던 강대국들이 한 걸 갈 때마다 멸망을 당했다.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부터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왜 신한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하나. 우리도 인간인데 왜 무조건 엎드리라고만 하느냐. 경배하라고 하느냐. 모든 것을 복종하라고 하느냐.’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인문학의 발달이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복음을 놓쳐버린 1,000년의 중세시대는 계속 재앙을 받았던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흑사병과 같은 질병이 유럽에 들어와 인구의 2/3가 죽었다. 사람들이 다 있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장악한 결과 두 번이나 세계 1,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지구상에서 수 천만 명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평양에서 총화를 열고 신사참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 땅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점령해서 70년간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앙의 흐름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질병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니까 그 때 아라나의 타지마장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공하다보니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몇 만 명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났다. 시대의 움직임을 보면 총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자연현상과 세계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날이 온다더니, 지금 그것을 법제화 시키고 있다. 그것들이 한국에 왔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재앙의 흐름을 막는 운동을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가 마치 못하면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다. 렘29:11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교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행복이다. 누가 교회를 살리고, 누가 복음을 회복하고, 누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재앙을 막을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참사랑교회인 줄을 믿는다.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만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한다. ‘주여, 내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 행동거지가 복음으로 지배받게, 나의 사상이 복음에 지배받게 하옵소서. 내 사업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오늘 구약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제목을 붙잡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겠다. 오늘 1부 예배에서 주 집사님이 기도했다. 교회 목표를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갈 길은 이 세 가지인 줄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다른 것 할 것 없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게 되어있다.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① 무너진 개인을 살리는 1:1 복음운동을 다시 일으켜라는 것이다. 우리 용어로 말하면, 다락방운동을 다시 일으켜라. 마가 다락방운동을 다시 일으켜라.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다시 일으키라.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61:1-3의 말씀을 보면, 현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매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살길을 열어달라고 애달린다.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서 애달린다.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가난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가난에 빠졌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자살률 1위이다.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것으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으로 1등을 한다. 기가 막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너무 파폐되어 있다. 가난에 빠졌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부유하기를 축복한다. 이것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복음소식이다.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번 명절에도 복음소식 말하는 주간이 되기를 축복한다. 복음을 말할 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답을 가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선한 자가 보이게 되고, 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악으로 포로 되고, 잘못된 각인으로 포로 되고, 마약으로 포로된 자들이 보인다. 갇힌 자가 보인다. 악에 갇힌 자,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갇힌 자, 슬퍼하는 자가 보이게 된다. 내

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을 한 사람씩 살려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략가운데 기초전략은 5가지이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지교회,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건져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은혜 받아야겠다. 살아야겠다. 무엇을 더 갖춰야겠다.' 이 생각을 넘어서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내게 맡겨진 자, 내가 만나는 자, 나를 찾아온 자를 살리게 해달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복음,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갇힌 자를 놓아주는 복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여행을 가면서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 부요가 내게 덮쳐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주위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돈 벌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독서도, 노력도 해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싫어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살린 것은, 이 땅에 너를 있게 한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면 그 행복이 10배, 100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현장을 울바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첫 번째이다. 전도사가 되는 것은 마가다락방의 체계를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안 될 때는 다 때려치우고, 다시 시작할 때 마가다락방의 체계를 해야 한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것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캠프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캠프를 진행할 때 이것을 해라. 사61:1절에 황폐한 오래된 것. 옛부터 무너진 것, 황폐한 성읍이야기가 나온다. 이 현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캠프를 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약마가 이 지역과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봐라. 음식, 집, 의복,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보이는 순간 그들을 살리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보인다. 그래서 먼저 탐색하라는 것은 그것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나면 그것이 보인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된다. 내가 가진, 체험한, 누린 복음을 말하면 된다. 대대로 무너져있던 것을 중수해라. 지교회 운동을 다시 세워라. 캠프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곳곳에 복음 운동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전도운동, 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왜 나는 다락방이 안 되지?' 하면 우리 집을 개방해라. 다락방을 만들어라. 제일 안 되거든, 나는 그렇게 했다. 유치원생정도 되는 아이한테 가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더라. 그러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초등학교, 다음에 중등학교, 어른으로 처음에는 지식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나중에 지성인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인다. 서서히 하면 된다. 사람을 살려보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나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 행복감이 정말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한다. 류목사님이 입만 열면 '나는 아직 머리로 영색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안경도 안 쓰고 지금도 글을 본다.' 별써 68세 이신데도, 안경 안 쓰고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신다. '복음운동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여러분도 그런 자랑거리를 하게 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웃음) 현장에 계속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산업인들이 성공해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전도사의 직수인 되게요. 말씀에 나오는데 나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버는 문을 열어주신다 하고 하면서, '나 이제 돈 좀 벌게요.' 한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했다가 주시도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참사랑 가족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이 때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든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다. 말을 할 때는 복음의 말을 해라.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한다. 나도 메시지를 하다보면 율법을 선포할 때가 있다. 돌아가서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복음을 들어놓고 그렇게 교인들의 힘을 빼놓으면 되냐' 하면서 나를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른다. 설교도, 사역도, 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이나, 광부가 곡괭이를 가지고 깊은 굴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시간이나 같은 일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주 안에서 하는 일이면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②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계복음화이다.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한 명밖에 보내지 못했다. 그것도 생활비를 다 못 대준다. 여섯 식구가 어떻게 300만원으로 일본에서 사는가. 못 산다. 그런데 그 그동안 자기가 모아냈던 돈을 거다 쓴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저 교회를 하나 지어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마음으로 눈물이 난다. 왜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꿈을 꾸게 되었나면, 류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선교사가 될 사람은 꼭 읽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한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너무 몸이 너무 약해서 선교사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보내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나 복음 전하고 싶는데 왜 자꾸 떨어트립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셔서 말쑹하셨다고 한다. '야, 이 녀석아 꼭 내가 가야 하나. 더 많은 사람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음성 이 들린 것이다. '맞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의 수도 토론토에서 선교를 위한 교회를 개척했다. 결국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는데, 피플스 처치(peoples church)라는 교회가 단일교회로서는, 내가 책을 읽을 때 당시 100명의 선교사를 보낸 것이다. 그 교회를 두 번 가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5불, 10불, 어떤 사람은 100불, 나중에 1000불, 5000불 50000불을 내기 시작했다. 토론토에 돈 있는 사람은 다 그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다시 그 교

회를 가봤다. 지금은 4대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1,500명 정도 모이더라. 선교사가 몇 명쯤 나가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1,500명 된다고 한다. 여러분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나는 다리가 휘청하더라. 1,5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선교사 1,500명을 파송하는가. 한 가정이 아니다. 한 사람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캐나다에 가거든, 도심에 있으니까 반드시 피플스 처치를 한번 찾아가봐라. 그 때부터 내 마음에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세계의 237개 나라에는 다 못 보내지만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 생각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슬로건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축복한다. 이제 50년을 향해서 가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고 나면 그것밖에 할 일이 더 없었는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복지도 전도를 목표로 해라. 그냥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해라. 그 부모 형제 얼마나 불쌍한가. 본인에게도 복음을 계속 말하라. 그런 복음을 듣는 사람을 계속 직면으로 채용하고, 복음으로 헌신해라.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역사가 일어 나면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다. 나중에 들어올 줄을 아는 정도로 미어터지게 된다. 응답이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어느 분야에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이다.

③ 세 번째이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세 번째 답이 사61:9이다.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는 램넨트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여기에 오면서 바로 장학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 때는 얼마나 가난한지, 심방을 해도 단돈 500원, 1000원 심방헌금을 하지 못하더라. 그래도 한 사람씩 모아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 재정이 모자르지만 거기에 넣지 않고, 그 때부터 우리 교회 재정이 50%, 100%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장학생들은 정신 차려라. 우리 교회 장학금이 적은 장학금이 아니다. 통계를 가지고 오. 수 천 만원을 받은 장학생도 있다. '이 어려운 때에 참사랑교회 장학금으로 자랐다. 연약진, 복음자진, 복음 전하는 참사랑교회' 나의 젊은 날의 일기를 열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을 열어주었다. 나는 참사랑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해서 나는 후대를 키울 것이다. 거기에 나는 앞장 설 것이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날은 장로님이 짜장면도 사시고 선배들도 다 모여서 '장학금 받은 사람들 모여라.' 같이 모여서 후배 선배가 포럼도 하고, 여러분의 갈 길도 방향도 이야기하고, 이 은혜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되지 않는가. 부모역자들은 이것을 왜 못 만드는가. '장로님 이번엔 짜장면 좀 사세요. 애들 모아서 이야기 좀 하세요.' 하면 안 하실 장로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 만들 줄을 모른다. 그 젊은 날의 머리를 어디다가 쓰려고 죽으면 뭐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만들어라. 그래서 참사랑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약동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면서 참여하도록 체험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이제 얼마 안되는 노인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램넨트 훈련에 생을 걸어야 한다. 어제 20주년 되는 RLS에 갔다 왔다. 메시지를 전하러 가서 학생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이런 램넨트들이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 이 아이들이 '세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간식 주는 것을 먹지 않고 돈을 모았다고 한다. 그래서 산삼을 샀다고 하면서 박스예다가 꼭 가져가서 쳐야 한다고 해서 가져왔다. 오늘 아침 하나 먹었다. (웃음) 12년 된 산삼을 샀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속에 담겨진 복음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동했고 행복했다. 우리 램넨트를 살려야 한다. 램넨트가 일어나서 다시 램넨트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서밋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 나야 한다. 이것을 기도로 계속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가지 있게 헌신하는 응답을 같이 누리라. 장학사업도 계속 해야 한다. 램넨트들을 키워서 세계복음화하고, 복지단체를 통해서 전도운동해서, 억울하고 슬프고 힘이 없는 그들을 살리는 교회, 개인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말씀을 마치겠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50년을 맞아 무너진 한국과 세계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병들어있는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치유전쟁을 시작해야겠다.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짓 성경사, 서밋을 살려내도록 해야겠다. 특히 중요한 현장이다. 교회를 무너트리는 문화, 사상을 깨트리는 가치관에도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신앙, 문화관을 가져야한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금까지 동성애를 옹호했던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병역거부자이면서 동성애자인 사람이 국방부에서 장관들을 다그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생명 걸고 우리는 맞겠다. '나를 죽이고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너도 망한다. 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을 줄을 믿는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 서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증거들을 확실하고 주실 줄을 믿는다. 사61:1의 말씀대로 주 여호와와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 날, 이런 역사가들이 바로 우리 앞에 전개될 줄을 믿는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지난날을, 한국과 세계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전도운동을 생명 걸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살리는 운동 하게 하여주소서. 불쌍하고 외로운 자들을 살려내는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계 만민에게 복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램넨트를 훈련시켜, 램넨트를 살려, 이 민족 세계 살리는 일꾼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일에 생을 걸게 하시고 저들을 훈련시킬 시스템을 갖추 수 있게 축복해 주소옵소서.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